

哲學이란 무엇인가? (一)

李晶燮

金: 李君 오래간만일세. 요새 學海片□을 잘 보왔네. 그런데 이 炎天에 論理니 實在니 가슴 답답한 소리랑 그만하고 좀 더 興味津津한 論文을 쓰면 어대? 자네 「술본」에서 文學을 뱃다지?

이: 나는 文學이 머인지 모르네. 爲先 興味津津한 글쓰는 사람의 種類가 짜로 잇는데 내가 주제넘게 그런 것을 쓸 理가 잇나.

김: 아-올치! 자네 哲學 뱃다지. 그래 哲學이란 무엇인가?

이: 炎天에 가슴 답답하게 哲學이 무엇인 것은 알아 무엇해? 淸凉里 가서 松柏樹 푸른 가지 눅드란하게 그네 매고 綠衣紅裳 美人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오락가락 노닐 적에 江山이 自進退.....

金: 그래! 美人들이 오락가락 그네 썬는 것을 볼 새 자네는 時計振子の 公式 $T=\pi\sqrt{\frac{l}{g}}$ 을 생각하고 잇슬 모양이지? 여보게 그리 말고 說明 좀 해보게.

李: 爲先 哲學이란 무엇인가 하는 質問을 □하는 者에게는 哲學을 말해야 모른다. 그러나 君의 請이기 通俗의으로 말하려 하네.

哲學의 定義는 哲學家에 依하여 區區雜多하지만 大概 두 가지로 分類할 수 잇다. (一) 哲學은 宇宙의 제일 深奧한 眞理를 說明하는 것이오. (二) 哲學은 本質上 人間精神을 研究하는 것이라 한다. 이 二種의 定義는 一見에 매우 相異한 것 가트나 事實上 相同한 것이다. 이제 順序를 짜러 第一定義부터 說明하여 보겠네.--科學이라함은 觀察 或 實驗에 依하여 事物의 存在法則과 存在理由를 說明함이다. □□□은 宇宙의 모든 現象의 一□□의 現象을 說明함 이오, 이 宇宙□의 諸現象을 한 군데 반증하여 研究하는 科學이라고는 업다. 그러나 哲學은 吾人 人生이 宇宙에 對하여 所有한 智識 全體를 한 군데 綜合 或 融合하여 가지고 다만 第宇宙 高尚한 度數의 瞥□의 智識을 得하려 할 썬만 아니라, 分離된 諸科學의 諸觀察을 超越하여 宇宙의 모든 事物의 深奧에 投入하려 한다. 그럼으로 哲學의 □□는 스스로 神과 自然과 人生의 三界에 及한다.

金: 매우 模糊한데!

李: 이제 簡單한 一例를 드려 君의 模糊를 除去하려 한다. 一犬이 나에게 뎀베들 썬에 내가 一片의 石을 投擲하였다 하세. 이 簡單한 事實에 對하여 諸科學者의 研究하는 範圍는 制限되어 있다. 物理學家는 石片의 □初 速度와 方向, 引力의 強度, 空氣의 抵抗 等を 알면은 □射體의 □道를 描出하려 할 것이오, 한 解剖學者는 어느 部分의 筋肉이 收縮되고 어느 部分의 筋肉은 伸長되었스며, 어느 中樞神經이 어느 運動神經의 媒介로 나의 □□의 □□을 □□하였다함을 研究할 것이오, 한 心理學家는 내가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感動의 表現에 對한 諸觀察을 하려 할 것이다. 이와 가티 科學家는 나의 一動作을 多數한 現象으로 分析하여 各其 局部的 事實에만 着根하나니 斯□의 分析은 研究上 必要에 依함이 分明하다. 그러나 나의 動作을 外部에서 觀察하는 諸科學者의 모든 局部的 事實을 綜合하여, 그를 다시 諸科學者가 觀察치 못하는 바 내가 感動한 것과 내가 感覺된 것과 내가 願한 것의 모든 事實과 連結하여 思考치 아니하면 나의 動作 全體를 說明하였다 하기 어렵다. 換言하면 筋肉을 伸縮하였다, 石片을 投擲하였다 하는 外部的, 物質的 事實 이외에 내가 感動하고 感觸하고 願한 內部的, 精神的 事實이 잇스니, 이 二種의 事實을 連結하여 思考치 아니하면 나의 動作 全部를 說明 못하였다 할 것 아닌가?

이에 內部的 事實이라함은 一犬이 나에게 뎀베드는 것을 본 일, 그리하여 나의 身體의 內部器官의 精神으로 危險하다는 意思가 내 머리에 온 일, 그리하여 내가 어저한 動作을 取하기 始作하여 感動이 온 일, 내가 逃避하기 바로 前에 내가 已往에 어저 犬에게 投石하여 그 犬이 逃走한 記憶이 나에게 온 일 밑 그럼으로 내가 逃避하지 아니하고 已往과 가티 投石하겠다는 意思가 온 일, 그리하여 나의 意識的 動作이 無意識的 動作에 連結된 일 等を 말함이다. 이것이 投石한데 對한 內部的 事實이다. 그러면 이 內部的 事實 卽 精神의 모든 作用을 앗가 科學者가 研究한 外部的 事實에 連結하고 생각하여 나의 投石한 事實의 全部를 說明할 것이다. 그러나 外部的 事實인 物質과 內部的 事實인 精神은 元來부터 本質의 差異가 잇서 物質과 精神은 結合할 수 업다. 그러나 나의 投石한 事實이 內部的 事實과 外部的 事實의 連結로 되어 不可分離의 關係에 在함이 分明하니, 物質과 精神 間에는 一定한 關係가 잇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이 關係를 알기 위하야는 吾人은 物質과 精神에 對하여 어저한 假說을 세워야 하것고 쏘한 物質은 무엇이다, 精神關係에 對하야는 무엇이다 하는 概念을 삼어야 하니, 이까지 오면 우리는 事物의 第一深奧한 데로 드러오게 됨이다. 이와 가티 哲學이라함은 諸般 實在를 結

습해야 第一 高尚한 普遍的 智慧를 어드려 하는 同時에 그는 또한 分離된 諸科學의 諸觀察을 超越하여 모든 事物의 □□에 投入하려 한다. 여보게 눈이나 좀 뜨고 줄게. 말할 맛이 나 잊게 알아 들었나?

金: 果然 그럴 뜻하네.

李: 簡單히 말하면 이것이다. 第一 簡單한 事實일망정 吾人이 그 事實을 훼손치 안코 事實 全體를 皮相的으로 認識치 아니하고 深奧하게 認識하려면, 吾人의 好奇心에 錯雜한 問題를 喚起하여 科學이 說明 못하는 暗澹한 究境에까지 論理의 火□을 케들고 想像의 禮器를 손에 잡고 深奧한 眞理 爭取에로 가는 것이 哲學이 하는 일이다.--오늘은 大衝 이만 말하고 來日 哲學의 第二定理를 說明할 쎄 今日 말할 것이 더 明白하여 질터이니 來日 또 만나세. 잘 가게.